

오색단풍 전시장에 물들다.

제36회 문경미술협회 정기전시회 개최

가을이 익어가는 10월에 코로나로 인하여 2년간 지상전으로 치루어진 문경미술협(회장 이규성)의 정기전시회가 올해 10월 14일(금)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36번째 전시회가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서양화 외 5개 분과 55명으로 이루어진 문경미술협회의 회원들은 오랜만에 전시장에서 오프라인 전시회를 열게 됨으로서 그동안 움추렸던 작품발표 활동을 마음껏 펼치면서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였고 관람하는 시민들에게도 문화예술 향유라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올해는 신진작가들의 작품에서 다양한 색상과 다양한 소재의 작품이 창작, 출품됨으로써 발전하는 문경미술협회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문화강국 문화시민이라는 말이 있듯이 소도시 문경시 지역에 미술문화의 선도적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2022년 10월 14일

